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 1

(10시02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오셨고요.

김주영 의원실에서, 양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셨고 김동아 의원실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개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대표연설

(10시03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문화·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 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 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 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 내고 새 길을 열어 낸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공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다시 희

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린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52시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거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심이 됩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장내 소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노동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닐 겁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저 얘기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시간 길어지잖아요.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등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 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 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 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다 보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 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띄워 봅시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 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때창과 함께 헌정과괴와 역사퇴행을 막아 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내 소란)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들어 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박충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충권 의원 의석에서 —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지요?

(「빨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할 거예요.

그만합시다.

내일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시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줌……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 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 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를 만들고 AI 기술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에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앞으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갑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 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케이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케이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어서 K-미식 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처 관광 5000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

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만한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 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 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 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 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 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 협력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에 한국의 주력산업이었던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폐업하면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 그리고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 있고 밖으로는 충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세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장서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고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 주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 낸 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

개혁 기회로 만들어 복지국가와 IT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우리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쉽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의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 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던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우원식 이재명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276인)

| | | | | | | | | | |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 김 건 | 김교홍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 김문수 | 김민석 | 김민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 김성환 | 김성희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 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원 |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중 |

| | | | | | | | | | |
|-----|-----|-----|-----|-----|-----|-----|-----|-----|-----|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 박 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현 | 백혜련 |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 서지영 | 성일중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현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문석 |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균 | 윤종오 | 윤준병 |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현 | 이달희 | 이만희 |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희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현승 | 이훈기 |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 정일영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 희 | | | | |

○개의 시 재석 의원(245인)

| | | | | | | | | | |
|-----|-----|-----|-----|-----|-----|-----|-----|-----|-----|
|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 건 | 김교홍 | 김기웅 |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민전 |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희 | 김소희 |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 김위상 | 김 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 현 | 김현정 | 김형동 | 나경원 | 노종면 |
| 맹성규 | 모경중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균택 | 박대출 |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 박은정 | 박 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준태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소병훈 |
| 손명수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 안철수 | 안태준 | 양문석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균 | 윤준병 |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현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 이상식 | 이상희 | 이성권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현 | 이종배 |

| | | | | | | | | | |
|-----|-----|-----|-----|-----|-----|-----|-----|-----|-----|
| 이종욱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운 |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 | | | |

○산회 시 재석 의원(255인)

| | | | | | | | | | |
|-----|-----|-----|-----|-----|-----|-----|-----|-----|-----|
|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 김교홍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희 | 김소희 |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중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 민병덕 | 민형배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현진 |
| 백선희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현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재옥 | 윤종균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현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욱 |
| 이주영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현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 정동만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 정혜경 | 정희용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운 |
| 최수진 | 최은석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 | | | |

○출장 의원(13인)

| | | | | | | | | | |
|-----|-----|-----|-----|-----|-----|-----|-----|-----|-----|
| 권칠승 | 김미애 | 김영호 | 김재섭 | 박상혁 | 배준영 | 위성락 | 유상범 | 장경태 | 정동영 |
| 조경태 | 차지호 | 한정애 | | | | | | | |

○청가 의원(8인)

| | | | | | | | | | |
|-----|-----|-----|-----|-----|-----|-----|-----|--|--|
| 김성원 | 민홍철 | 박성민 | 안호영 | 이준석 | 이철규 | 정점식 | 정준호 | | |
|-----|-----|-----|-----|-----|-----|-----|-----|--|--|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직무대행) 최상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출석 정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장관직무대리) 강도현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국방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행정안전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보고사항】

○간사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 | 한기호 | 국민의힘 | 2025. 2. 4. |

○상임위원 개선

| 위원회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외교통일 | 윤상현 | 유용원 | 국민의힘 | 2025. 2. 4. |
| 국방 | 유용원 | 윤상현 | | |

○특별위원 개선

| 위원회 | 사임위원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 김성원 | 장동혁 | 국민의힘 | 2025. 2. 4. |

○의안 제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5)

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2. 3.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7)

이상 2건 2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이상 3건 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9)

이상 3건 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0)

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2. 3.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6)

이상 4건 2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이상 2건 2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9)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2025. 2.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1)

이상 2건 2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3)

이상 3건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패션산업 진흥법안

(2025. 2. 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8)

이상 2건 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이상 4건 2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9)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2.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6)

이상 5건 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0)

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이상 2건 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1)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2025. 2. 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이상 2건 2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

이상 2건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이상 3건 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5)

이상 2건 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4)

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이상 2건 2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이상 3건 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2)

2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5.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8)

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7)

이상 3건 2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4)

이상 4건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7)

이상 4건 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이상 5건 2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8)

2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건한 한미동맹 관계 지속발전 지지 결의안

(2025. 2. 6. 김건 의원 등 108인 발의)(의안번호 2207927)

2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군급식법안

(2025. 2. 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이상 3건 2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이상 4건 2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우산업기본법안

(2025. 2.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2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2. 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이상 2건 2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이상 3건 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1)

이상 6건 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6)

2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5)

국회의원(강선영) 징계안

(2025. 2. 7. 용혜인 의원 요구)(의안번호 2207976)

국회의원(임종득) 징계안

(2025. 2. 7. 용혜인 의원 요구)(의안번호 220797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2)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4)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5. 2.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2. 7. 이강일 의원·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025. 2. 7.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1)

이상 5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 2. 7.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07960)

○의안 철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3)

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31.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2)

2월 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김용태 의원·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9)

2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2025. 2. 1. 이미영 외 84,1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6)

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

(2025. 2. 4. 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

(2025. 2. 5. 전경진 외 52,6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9)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2. 5. 우길영 외 52,39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8)

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2025. 2. 6. 변지원 외 50,45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0)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2025. 2. 6. 변지원 외 58,7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1)

이상 2건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불법 전자담배 퇴출, 탈루 세액 징수 및 담배 동일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청원

(2025. 2. 6. 맹희석으로부터 김준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102)

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

(2025. 2. 7. 박희영 외 50,0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3)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5. 2. 7. 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고서 제출

5·18조사위, 권고사항 관련 국가보훈부 검토 의견 제출(비공개)

(2025. 2. 4. 국가보훈부 제출)

2월 4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